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2:37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5월 3일 (토) 제 201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테크놀로지에 지혜로운 교회가 되라

지역 교회가 교회로서 번영하도록 돕는 역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신론이나 세속주의, 과학주의나 율법주의,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다. 교회가 대면한 가장 큰 위협은 디지털 기술이다.” 스크린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브래드 이스트의 주장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동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사전 녹화 예배나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양보는 빠르게 많은 교회의 주요 관행이 되었고, 교회 지형에 영구적인 변화를 끼쳤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테크놀로지 발달에 발맞춰서 교회(교회론)에 대한 관점만큼 많이 달라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역을 돕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디지털 중독자를 위한 교회

교회가 가장 먼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고안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다. 알고리즘 기술, 도파민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자본주의의 “관심 경제”는 하나같이 인간



이 거부하기 힘들도록, 중독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한마디로 디지털 생활은 중독이라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교회가 성찬식에서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제공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잘 살펴보면, 다름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교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는 디지털 중독자가 가득하고, 대부분은 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디지털 중독에 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와 관련한 특별한 사역이나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으며, 설교에서 언급하는 일도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와 디지털 중독을 통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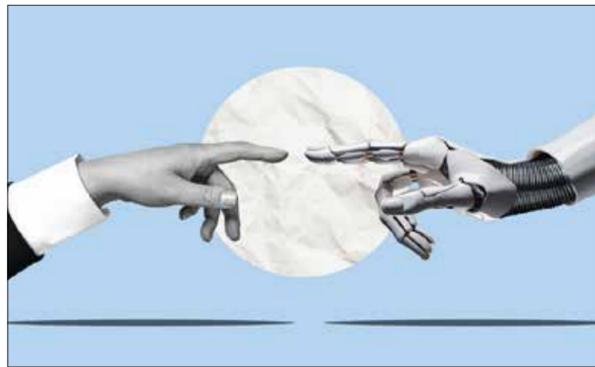
조너선 하이트와 그의 책 불안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에

관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덕분에 마침내 부모와 학교는 스크린이 아이들의 학습 및 성장 능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쯤이 되어야 그 흐름을 따라갈까? 기독교 내 테크놀로지 낙관론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코덱스(성경사본)에서 시작해 인쇄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항상 최첨단 기술 발전의 선두에 있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회가 실리콘 벨리의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현실을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뒤처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까?

기술에 지혜로운 교회를 향하여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 미래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동시에 문화 속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문화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도덕적 사고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앤디 크라우치의 훌륭한 책에서 따온 표현을 빌리자면, 지역 교회는 테크놀로지에 지혜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 함께 지혜와 용기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

(3면으로 계속)



시가 만든 설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

마음이 없는 설교는 곧 능력이 실종된 설교이다

요즘 목사들 사이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Gemini나 ChatGPT 같은 AI 플랫폼을 사용할지 말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어디를 가도 AI의 능력에 감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AI 플랫폼은 특정 주제(prompts)에 맞춰서 매우 정교하고 인상적인 설교 개요, 설명, 해설, 적용까지 제공한다. AI 플랫폼의 역할은 정말 놀랍다.

그럼 목사가 설교 준비에 AI를 사용해야 할까? 내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반응은 신중하지만 동시에 개방적인 태도이다. AI를 사용하여 설교 주제를 만드는 것, AI로 하여금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예화까지 만들도록 하는 건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단, 설교 준비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해석에 할애하고

또한 설교 원고 작성에 AI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기술에 기반한 경고는 효과가 없다

AI와 관련해서 목사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나는 그들이 단지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목회자라면 설교 준비에 피와 땀을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안다.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책임을 로봇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교인들을 잘 아는 것, 그들의 특별한 필요와 유혹, 그리고 소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목회자에게 필수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목회대상 여병현 목사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싱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제74회 국가기도의날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롬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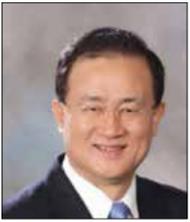
2025. 5. 1(목) 오후 7시, 중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중현선교교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 월드쉐어USA CMF 가정 사역원
Soon Movement Global 남가주 장로 성가단
협력 단체: 남가주 각 지역 교협, 샬롬센터, CBS 중보기도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협력 언론 기관: 크리스천 비전, 크리스천 위클리, 기독교일보, Holy City Vision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헤럴드, CBS TV, 조선일보

NATIONAL DAY of PRAYER
PRAY WITH AMERICA

시론

부활절 후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미국 현대 희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벨상 수상 작가 유진 오닐(1888-1953)은 <나사로가 웃었다(Lazarus Laughed)>라는 비범한 작품을 썼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을 만에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을가를 상상하면서 쓴 장편의 글이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늘 웃는 얼굴로 산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웃었다. 하루 종일 웃었다. 죽음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노심초사하고, 걱정 근심에 잠도 못자고,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거칠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모든 일을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아량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사는 집에 '웃음의 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가 사는 동네 베다니는 나사로 덕분에 아주 기쁨이 가득한 동네로 소문이 났다. 급기야 나사로가 사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이런 사실이 불편하고 못마땅하여 나사로를 관청에 고발했다. 관청의 관리는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궁리한 끝에 나사로의 웃음을 막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어 그 집 때문에 '웃음 금지'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나사로에게 절대로 웃지 말라고 협박하고 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자신이 본 사랑과 영원의 나라를 증언하며 죽음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부활절이 끝났다. 부활절은 단순히 교회가 해마다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부활의 능력과 정신으로 살기를 각성시키는 절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지켜오던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여 성수하지 않았던가! 주일마다 사실 성도들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날마다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또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부활의 정신으로 견고해져야 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 지난 1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최우성 집사를 종종 그리워한다. 최 집사는 기계제조 선수였는데 고교 1학년 때 이단 평행봉을 하다가 추락하여 전신마비로 47년을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순회 찬양팀에 의해 전도를 받고는 자신의 인생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전신마비로 신경이 죽었으니까 아프지 않을 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통증을 똑같이 겪는다. 작년에는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통증만큼은 느껴야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여기저기 병이 끊임없이 생겼고 수시로 욕창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기억이 남는 것은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뿐이다. 그는 항상 기뻐하였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 1호였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였다.

그는 특이하게도 주일에 거의 매주 출석하면서도 아플 때를 제외하곤 거의 매달 마우스 터치로 쓴 편지를 보내왔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2023년 7월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만 섬기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사고로 인해 구원의 길을 찾게 됨을 감사하고, 45년간이나 감사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심일조를 드리면서 심일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였다. 심일조 \$120, 심일조에 대한 감사헌금 \$10, 전신마비 된 지 45년 된 것에 대한 감사헌금 \$10, 주일헌금 한 달치 \$50, 집회감사헌금 \$10. 부활절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활절 후가 중요하다. 부활의 능력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분의 현존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제는 나사로처럼 웃어야 하고 최 집사처럼 감사해야 한다.

minkyungyob@gmail.com

춤을 모르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나다움 찾기



인간의 창조적 힘은 언제나 경이롭다. 한국의 유명한 래퍼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한 지드래곤(GD)이 최근 '위버멘쉬(Übermensch)'라는 음악앨범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각종 주요 음원사이트 1위를 기록했다. '위버멘쉬'는 니체(Friedrich W. Nietzsche)의 철학사상을 대표하는 용어로, 한국어로 '초인' 또는 '극복한 자'로 풀이되며, '자신을 넘어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년(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 '최후의 만찬' 피날레에 '예수님' 대신 등장한 '디오니소스'는, 니체가 선진 '그리스의 음악적 신'이다. 니체는 당시 '신의 죽음'을 통감하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음악으로 긍정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성과 지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창조의 힘'을 가진 예술적 의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의 가르침은, 인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디오니소스적 힘의 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함'으로 새롭게 개척해 가는 '예술적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가 말하는 '예술적 삶'이란 '음악 속에 즐겁게 춤추며 찾아가는 자신의 주체성'이다.

세계 속 수많은 팬들이 춤을 추며 '위버멘쉬'를 외치고, 성공한 이들의 자기계발서에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긍정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법'에 대해 도전하고 있으니, 니체가 바라보던 세상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과 그의 초월적 신비함을 내몰고,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사랑하게 된 모습이 그렇다.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뛰어난 음악성과 재능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무신론에 매력을 느껴 신학을 그만두고,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카당(decadent)'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기독교적 삶이 언제나 절제하며(고전 9:25)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가는 삶(골1:24), 온갖 시련과 불시험(벧전 4:12-13)을 기뻐해야 하는 삶, 온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삶(

요 15:17-18; 17:14)이어서만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불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독교의 진리로 인해 더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 그에게 기독교의 도그마는 창의적 힘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의 사유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니체의 조롱은 오늘날 우리가 답해야 하는 중대한 질문이 되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니체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깊이 수용해서 '지친 얼굴과 모습'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술적 삶'보다 더 새로운 날들을 성령님과 함께 열어가고 있는가? 혹은 열정을 다해 열심히 교회가 마련한 '틈에 박힌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소비하는 즐겁고 감성적인 음악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즐거워하며 고난 속에도 춤추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에 관심이 쏠려 있으며, 개인 역시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사역의 일부를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품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래 동안 깊이 생각해야 하며 상당히 신중한 대답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우리는 너무 쉽게 두 마다 다른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마다 다른 길은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구체화된 규정을 제시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잘 다루지도 잘 견디지 못하는 일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언제나 무지(無知) 속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역동성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움과 불확실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며, 불편해하고,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서든 그 공백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동적 신비를 길들여 하며, 그의 주권적 일들을 설명하고 명명하고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고,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개설한다.

이러한 통제적 설계와 행동 규칙이 때로 굉장히 유용하지만, 우리가 품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되기는 힘들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순간, 마치 아담의 선악과처럼,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sany@yahoo.com

담임목사 청빙
낙원 장로교회
NakWo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창립 37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낙원 장로교회 (PCA)에서는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으로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복음주의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 (M.Div.)하신 분
제출서류: 1. 목회 비전 및 자기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제출마감: 2025년 6월 20일까지
제출처: 1. NakWon Presbyterian Church. (낙원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3364 Susquehanna Rd. Dresher, PA 19025

모데스토 한인 연합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교회는 북가주 센트럴밸리지역 모데스토에 위치한 독립교회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새롭게 이끄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포함)
제출마감: 2025년 6월 30일
제출방법: 이메일 130kucm@gmail.com
우편 Korean United Church of Modesto
130 Auto Center Ct Modesto, CA 95356

테크놀로지에 지혜로운 교회가 되라

(1면에서 계속)
창조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답답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진짜 삶에 참여함으로 만들어지는 깊이 있는 영적 형성을 이뤄내야 한다. 즉, 함께 말하고, 듣고, 즐기고, 찬양하고, 일하고, 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공동체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1. 성품을 선택하라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지혜와 용기의 함양으로 삼으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깊은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이다. 아무리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 해도, 성령의 예비적인 역사 없이 성취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접했다.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변증가들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훌륭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선교 현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선교지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혼자 선교 현장에 보내지 않는다. 성숙한 지역에서 직면할 위험을 준비시키지 않은 상태로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선교사는 목적을 가진 하나 또는 여러 지역 교회로부터 “과견”된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 모든 교회가 지원과 감독을 제공한다.

“플랫폼”이 주는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이고,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는 성품 함양을 더 강조해야 한다. 가장 큰 플랫폼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2. 공간을 구성하라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라. 그곳이 인격과 창의성 계발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셜 미

디어 이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기독교적 감각을 말할 때는 자동이었다. 자동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관리하거나 교회 규율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다. 마음에 드는 음악, 프로그램, 설교, 그리고 미적 감각이 있는 곳이면 교인들은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지역 교회”에 참석한다고 말하지만, 지역성에 대한 감각은 대부분 사라졌다. C. S. 루이스가 70년 전에 간파했듯이, 자동차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간을 파괴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간을 차지하는 몸으로 존재하며,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중요하다.

윈스턴 처칠이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은 결국에 우리를 만든다”라고 예리하게 말했다. 예를 들어,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가사, 슬라이드쇼, 홍보 영상 등을 보여주는 다목적 공간인 교회 건물은 교인들을 영화 관람객으로 만들어간다.

강당을 스크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진짜 존재감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라.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교회는 회중 찬송 시간에 의도적으로 불을 켜서 서로를 잘 보도록 한다. 또한 교인들 중에서 장인과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강대상, 성찬식 테이블, 그리고 연단 뒤편 나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제작하게 함으로 그들이 성소를 물리적으로 느끼도록 유도했다. 다른 교회들은 예배당 밖에 휴대폰 바구니를 설치하여 교인들이 들어올 때 머리가 아닌 휴대폰을 놓고 가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다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3. 시간을 만들라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당신의 삶에 리듬을 심으라. 이러한 리듬은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준다.” 자동차가 공간을 파괴했듯이, 디지털 기술은 시간을 파괴했다. “거의 끊임 없이” 온라인 상태에 있다고 대답한 십대가 거의 절반에

달했지만, 나머지도 사실상 설득력 있는 주장은 기술을 대체가 아니라 향상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유익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지역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팟캐스트, 단편 및 장편 영상, 그리고 기사를 활용하여 성도들을 훈련하고 죄인들에게 다가와, 이는 실제화된 교회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 그들은 실제 공동체에서의 의도적으로 교인들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서로의 대면 연결을 돕기 위해서 회중 예배에 디지털 화면을, 행사 기



는 대신, 그리스도의 삶에 중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교회는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만찬을 즐기며, 주중 내내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의 생활 리듬에서도 우리는 지역 교회와 삶을 연결시킬 수 있다.

디지털 저항

21세기에 창의적으로 디지털에 저항하려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중에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크린 없는 교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창조와 신학의 기술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결코 투덜거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다. 공동체의 충만함, 실제화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디지털 미디어를 예배로부터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디지털 사역에 대한 가장

대체가 아니라 향상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유익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지역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팟캐스트, 단편 및 장편 영상, 그리고 기사를 활용하여 성도들을 훈련하고 죄인들에게 다가와, 이는 실제화된 교회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 그들은 실제 공동체에서의 의도적으로 교인들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서로의 대면 연결을 돕기 위해서 회중 예배에 디지털 화면을, 행사 기

획에 QR 코드를, 그리고 체크인 키오스크를 통해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관리한다.

하지만 교회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중에 어떤 것은 반교회적(anti-church)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과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또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는 초교회적(parachurch)인 것도 있다. 하지만 어떤 디지털 매체도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 테크놀로지는 지역 교회가 교회로서 번영하도록 돕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지 기독교 비영리 단체, 기업, 인터넷 카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진리의 기둥이자 지지대로서 말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지지대이듯, 테크놀로지도 단순한 절거용 쇠못치 또는 리모델링 팀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틀이자 받침이 되어야 한다.

By Noah Senthil, TGC

목회단상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토마스 칼라일

영국의 사상가, 역사가, 철학자이자 문필가인 칼라일은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에든버러 대학에서 신학과 수학을 연구한 뒤 스코틀랜드에서 수학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 “영웅숭배론”에서 “영국인들이 인도와 세익스피어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인도를 포기해야 낫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칼라일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일을 내세웠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일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병폐와 비참함을 막아주는 위대한 치료제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좋아하는 일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며 잘하는 일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도전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할 일이며 하나님 일이며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한 지상명령인 선교라는 할 일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일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부터 시작해 지금도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찾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 인도 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위해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일하신다”(요 20:30-31)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선포합니다”(고전 9:16,17).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칼라일의 말대로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할 일을 찾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배, 찬송, 기도하는 일,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

cefyeo@hanmail.net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트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백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25-2584, www.lkc.org 14 Green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718) 347-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p> <p>Tel: (516)387-9940, 9942 EMI,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p> <p>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55(월-토)</p> <p>Tel: (718)762-2525, 5756, www.hychso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금요예배: 오후 8:00 전교인분반별영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88, www.nybasid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세백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ongsunwong@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enangeburg, NY 108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4종교개혁: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공포기도회: 매일 낮 12:00, 새벽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일(월-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o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청빈한 삶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로마는 지금 주빌리오(회년)의 행사 기간으로, 가톨릭의 수장을 만나보기 위해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하는 중이다. 그런데 정작 존경하는 교황을 먼발치에서 희미하게 보거나 그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으니 기대하고 찾아온 신자들에게 안타까움이 크겠다 싶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데, 731년 그레고리 3세, 교황 이후로 최초의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었고, 최초의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이요,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 최초의 남반구 국가 출신 교황, 최초의 이종국적자 교황이라고 한다. 최초의 성 프랜시스(성 프랜시스)의 이름을 사용한 교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토리노 근

처 출신으로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피하여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으로 태어났기에 실상은 이탈리아인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유는 예로부터 교황은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이라야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황은 일찍이 성 프란치스코를 존경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8백 년이 지난 이후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교황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으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남이나 여이건, 그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관계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역대 교황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회의 인준을 받으려고 아시시로부터 로마까지 180Km를 평소에 즐겨 입던 누더기를 걸치고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 찾아갔다. 당시의 교황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노첸트 3세로 유럽의 황제들도 그 앞에 복종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교황이었다.

그런 교황에게 수도회의 인준을 받으려고 누더기 차림새의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교황은 기가 막혀,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런 거지발싸개 같은 것들!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손을 들었는데, 울린 손이 마비되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이들이 범상치 않다고 여겨 수도회의 인준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 수도회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번창함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역대 교황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며 존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기란 너무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중국의 순자는 이런 말을 했다. 미인을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희소가치 때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존경하는 성 프랜시스처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했을 것이다. 신문에 보니, 그는 매월 \$4,700-\$5,900을 받아야 했는데 교황으로 즉위한 때부터 무보수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고로 그가 남긴 돈은 \$100이었다고 하고--

그는 추기경으로 서임된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빈민 활동을 지속하였고, 항상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교황으로 즉위한 후에도 화려한 교황 전용 수소를 거절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싱글 침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TV에서 비취주었는데, 프로방스의 병원에서 화가 고흐가 사용했던 침대와 너무나 흡사했다. 또한 교황의 상징인 황금 십자가 대신 낡은 십자가를 목에 걸었고, 화려한 빨간 구두 대신 평범한 검은 색 구두를 신었다. 또한 묘지에는 장식 없이 검소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만 남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묘지도 바티칸이 아닌 마리아 델 마조레(마리아 성당)에 묻히도록 요청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화려한 바티칸 내에 묘지를 만들기를 그토록 소망하였는데 말이다.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평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불평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힘든 길을 간다. 그런 길이 진정한 주님을 쫓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롱장로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영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묻게 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여야 한다. 십자가를 묵상하려면 본문을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십자가 주위에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가롯 유다, 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이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가롯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섬기던 베드로가 실패하였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포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너무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다. 너무 자존심이 커진 것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더욱 제대로 된 예배인데... 지나친 자부심이나 전통과 관록 혹은 경험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월의식이 아니라, 지

다. 얽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려운 중증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구원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치었다더라면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여 본다. 틀림없이 그곳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순절 성령강림후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여도 사울왕부터 그 누구하나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을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만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불가능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가? 힘이 들게만 생각되는가?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살아계신이 증거되는 중요한 때인 것이다.

3.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 일 차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잔미하며 감람산 곧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여덟 제자들을 임구 좁에 두신 것 같고 베드로, 요한, 야고

정확하게 뚫어지게 보았겠는가? 그리고 벌써 갈릴리 말과 유대지방의 말이 다른 것을 알게 되지는 않았는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 떼었다. 보라! 준비가 되지 않은 가련한 한 영혼을!! 바로 그 때 닭이 울었다. 61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알량한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주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었다. 무슨 장면인가? 목숨을 걸고 겻세마네 동산에

하나되어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새인생을 출발시키는 위대한 시간들을 맞이 하도록 하자!!

1970년대 후반 오해령이란 배우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에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잘 할 수가 있었다. 수필작가, 희곡작가, 방송인, 배우로 살아가던 그녀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늘을 찌를듯한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자연히 바쁘기 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히 무리를 하였고 점점 나빠지는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러던 어느날 정말로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시간을 내어 찾아간 병원의 의사가 "왜 이제야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망칠 때까지 인생을 무리하였는가?" 나무라더니 앞으로 3달 후에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갑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위암과 임파선 암 말기 환자가 되어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루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나날을 보내며 3개월이 지난 어느날 매주 한번씩 백합 50 송이를 보내던 후원자가 그날도 변함없이 백합 50 송이를 보내왔다. 하도 기가 막히게 조용히 백합에 코를 파묻고 약 30 분이 지났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순간, 그날도 몰탄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는 다 죽어가던 자리에 누군가 찾아 오시었다.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방편을 하신 것이다. 오시어 목덜미를 낚아 방바닥에 나 뒹굴어지게 되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죽음의 한 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양탈을 부리고 나니, 모든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살아온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예수님께 죄송하여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 6개월을 회개한 후에 마침내 용서받고 고침받은 그녀는 의지할 곳 없는 독거 노인들을 돌보면서 하루 9 시간씩 기도하며 새인생을 살았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통곡하고 회개하여 새인생을 살게된 오늘의 베드로가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다.

revskna@gmail.com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누가복음 22:54-62

1. 자기 과신에 사로잡힌 베드로

누가복음 22: 31-32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경고를 받은 베드로는 당연히 풀어들었더라 예수님께 간구하여야 하였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번 말씀하시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주시요. 저도 최선으로 풀어들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여야 하였으나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저는 주와 함께 육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필자는 정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각오하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각오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베드로는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너져 통곡하며 기도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금도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요, 큰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지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시편 51편 17절 말씀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태도로 늘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바른 기회 포착에 실패한 베드로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각한 충고를 신실하게 받아들여 겻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성령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어떻게 외치었다가 가정하여 보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니다. 가르쳐 주시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땅에 보냄받으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수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에 그곳에서 잘못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급급한 사람들 중에 한 두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리마데 요셉 때문에 자칫 버려질 수도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믿는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 근을 드리어 향품처리되게 함으로 당시의 임금님 시신이 받는 향품을 받으시게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체험되고 증거되기 참 좋은 때이다. 성경은 이런 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우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골리앗은 여섯 규빗 한 뼘의 키이기 때문에 거의 3m 가까운 키에다가 완전군장

보를 데리고 따로 가셔서 곁에 두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다. 돌던질 만큼 그들에게서 떨어져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신 후에 세 사람에게 가 보니 잠만 자고 있지 않는가? 깨우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탄식하시듯 말씀하시고 두번째도 똑같이 기도하신 후에 다시 와 보니 또 자고 있지 않는가? 또 깨우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세번째 기도하신 후에 불들려 가셨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다.

늦게야 정신이 들은 베드로만이 멀쩡히 따라가 아마도 대제사장의 친척인 요한의 교섭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온 것 같다. 추우니 불을 쬐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 대답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나도 아니로라" 그런데 세번째 문제가 생기었다.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요 18: 26에 의하면 귀를 찢린 말고의 친척이라 하였다. 얼마나

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수님은 지금 아마도 수백 억 톤은 족히 될 만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신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 사랑이 온 몸에 와 닿을 때 베드로는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일생을 살면서 닭이 울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이 생각이 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기를 계속하였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지 않았는가?

결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 께침하기 짝이 없으실 텐데도 에덴동산의 아담도 찾아오시고, 범죄한 다윗도 나단으로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신이 다 없어진 갈릴리 해변의 베드로도 찾아오신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살도록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그 주님과 하나되어 인생을 회개하고 회복한 후에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우리도 중요한 시기에 안일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무관심주의로 타락한 나를 회개하여 주님과

세상, 절기 신자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갔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다. 그러나 절기가 끝나자마자 부활절 배너 교체하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간 신자들이 많다. 부활의 감격과 상관없이 마치 은혜를 받은 적 없다는 듯,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

참된 성도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절기 동안만 뜨겁고, 절기가 지나면 식어버리는 믿음은 증인의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 하루만 죽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고 사랑한다면, 절기가 아니라 삶 전체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바로 증인의 삶으로 뛰어 들었다. 절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뜨거울 때만 움직이지 않았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당연한 결

베드로는 천방지축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였다. 겹세마네 동산에서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허물이 많고 약한 존재가 베드로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다. 인간은 실패자와 실수를 정죄하기 쉽지만, 주님의 방식은 다르다. 주님은 허물 많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셨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분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고 사랑한다면, 절기가 아니라 삶 전체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바로 증인의 삶으로 뛰어 들었다. 절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뜨거울 때만 움직이지 않았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당연한 결

오직 성령, 변화의 증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변화, 기쁨, 소망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세상의 비난과 박해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증인의 삶을 살았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르심이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부활 그 이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생명 빛, 반드시 증인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보아 경험하는 신앙이다.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 철학이 아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

성경에 나타난 증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본질, 증인의 정체성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증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다양한 신학적 배경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예배의 은혜는 넘치지만, 그 은혜가 삶 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은혜받은 자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직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는 책임을 낳는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이에게도 용서와 소망을 전해야 한다. 은혜는 개인의 감정적 만족에서 멈추지 않는다. 은혜는 반드시 입을 열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사명이 아니다. 모든 성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부활의 은총과 감격을 맞본 이들의 구체적 사명이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고난 주간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53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실제 부활사건인지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목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Lee 권사가 (전화로)

죽은 성도들의 부활사건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지성소의 성전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세번째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의 신화나 미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으나 렌스키는 주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주께서 죽으실 때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지진과 무덤이 터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고 지진은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조였을 것이다.

신약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윌리엄 헨드릭슨은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1) 실제의 부활사건이다. 2) 이 일은 주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발생했고 주님의 죽으심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3)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곧 무덤에서 나왔으나 주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태는 그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다. 4) 그들은 부활하였으나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5) 이 표적은 예언적이다. 이 사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할 중요한 예표이기도 하다. 렌스키는 이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부활에 대한 표적 증거 (a sign testimony)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 27:53) 이 원문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 라는 구절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2)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임종 시에 “무덤이 곧 열렸으며 예수님이 부활 시에 경건한 자들 가운데 얼마나 숨을 되받아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던 것 같다.” 고 말했다. 박윤선 박사도 성도들의 몸은 무덤이 열림에 따라 동하였으나 완전히 다시 살기는 예수님 부활 후에 되었다.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과 합합니다.

헨드릭슨의 견해와 요한 칼빈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헨드릭슨의 해석이 맞아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요한 칼빈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도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목적이 새로워지고, 살아갈 이 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전심으로 이끄는 열정이 된다.

더 나아가, 주님 만난 것이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복음을 고백하게 되며, 간증있는 삶을 살게 된다. 최고의 생기와 소망을 맞보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어떤 형편과 사정도 중요하지 않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증인의 삶을 잘 보여준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음을 듣고서는, 부끄러운 과거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증인이 되었다.

이 여인은 공식적인 사도도, 유력한 지도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이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적 혁명이다. 삶의

참 성도의 결론, 증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자리이다. 진짜 증인은 무대가 끝난 뒤에 증명된다. 부활절 이후, 당신의 삶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기 신자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신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증인의 삶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간증하는 절정이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부활의 결론, 행복한 증인

-직접적인 변화, 간증있는 삶, 거룩한 부담-

론이다.

부활, 직접적인 변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다. 그분의 오심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을 넘어, 인류 역사를 돌로 나누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된다.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로 인한 역사의 전환은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은 누구나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시발점이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절정을 넘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제자들의 변화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이다.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고 외쳤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찢린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삼천 명이나 되었다.

한때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던 베드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 성전을 향해 가던 중에 나뉘는 사부터 견지 못한 병자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 더 나아가 그는 담대히 핍박자들을 향해 외쳤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 부활은 단순한 감동이나 사건의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백과 순종의 삶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결코 은혜를 거슬러 침묵할 수 없게 된다. 복음은 감추어질 수 없는 생명의 빛이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의 인도를 따라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마땅한 본질이다.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역주권 사상을 많이 이야기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부가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상이자. 동의한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가운데 말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기본 되는 예수를 전하고, 알리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지는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직업생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영속을 구별한다고 오해를 받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붙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며 마침내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낌 없이 증인의 자리를 붙든 것이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헛되지 않게 하려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째로 뒤바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로는 전도지가, 때로는 작은 친절이,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함을 기억하면서, 증인의 책임에 순종해야 한다.

삶의 전환, 최고의 행복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 땅의 관심사에서 하늘의 관심사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이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적 혁명이다. 삶의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산고(産苦)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은 대다수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한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진저리를 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두셋을 낳기도 한다. 아이를 키워보니 그 키우는 재미와 보람이 잠깐의 산고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한 까닭이 아닐까 싶다. 글을 쓰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한 것이 많다. 그러나 막상 쓰기 시작하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일기처럼 매일매일 일어났거나 경험한 것들을 적기조차 그리 쉽지가 않다. 하물며 무언가를 조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성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한다고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으니 지당한 말이다. 상상이라는 것도 알거나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난다. 물론

공상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나 그 공상이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고선지라는 제목으로 다섯 권의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다. 고선지는 668년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뒤 당나라로 끌려간 20여만 명의 포로의 후손으로 당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그의 신분은 고려노라는 지위지지도 벗겨지지 않는 명예가 쇠어져 있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가 그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고선지에게도 고려노(高麗奴) 즉 고구려의 노예라는 패찰이 언제나 붙어 다녔다.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이었을까? 당나라는 외세와의 쟁투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어 당나라 본토인들만으로는 외세를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노들에게도 변병으로 군대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고선지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고 그의 출중한 지략과 용맹으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당나라 서방을 지키는 안서절도사가 되었다. 안서는 실크로드의 동행로였

다. 따라서 실크로드의 안전은 상단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수입은 당나라 황실의 가장 큰 자금줄이 되고 있었다. 고선지는 실크로드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미르 고원 일대와 중앙아시아까지 정복하여 당시의 72개국을 당나라에 조공을 하도록 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려 파미르고원의 패왕(霸王)으로 불려졌었다. 고선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다. 고선지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 오직 그 하나가 전부다. 실크로드는 이전에도 복음이 동진하는 통로였고 앞으로는 복음이 서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또한, 파미르고원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세계의 지붕을 평정했던 고선지라는 그릇에 만인을 살리는 복음이 담겨져 만민에게 들려지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명도 없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나는 고선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고선지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 살을 채우고 피가 흐르게 만드는 작업은 최소한 내게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

를 말리면서 중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 선교의 사명 때문이다. 나는 2003년부터 미디어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의 매스 미디어에 선교를 접목하여 그것들을 보거나 듣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는 하자는 것이다. 이제 내 권까지는 마쳤고 지금은 다섯 권째를 쓰고 있는데 나 스스로와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을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어떤 때는 노트북을 펼쳐서 놓았음에도 단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한다. 앉아 있으니 편하게 느껴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피를 말리는 다시 말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느끼는 그 산고처럼 힘에 겹다.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집필이 아니다. 나 스스로 사명이라 믿으며 감내하고 있는 작업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처럼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의 내 역할이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런 것을 자청했

나 싶을 만큼 후회가 들기도 하는 진인사(盡人事)다. 남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게 앉아 있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신경은 온통 고선지라는 그릇에 어찌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1-15)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진 고통이 사후 영광의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나의 산고와 같은 이 작업도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노트북을 펼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방탄조끼 입은 목사'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한 메시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방탄복을 입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아나톨리 라이치네츠(Anatoliy Raychynets) 목사로 우크라이나 북음교회 대외 관계 책임자이며 우크라이나 성경 협회 부총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28일 이 같은 뉴스를 전하면서 세계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했다.



라이치네츠 목사는 부활주일인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침례교회, 우크라이나복음교회, 로마가톨릭교회, 그리스정교회 소속 성직자들이 포함된 에큐메니컬 사목단과 함께 최전선으로 이동해 수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선 군인들을 만나 위로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보안상 이들이 방문한 구체적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치네츠 목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 있는 군인 중 많은 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했다"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전선의 모든 병사는 부활의 아침 같은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전쟁터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겈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의 위로를 받으셨듯 우리 병사들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연대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병사들이 예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美 MZ의 신앙, '교회 향한 시각은 긍정적, 유연성 더 커져'

과거 '매주 교회는 가는 곳'이 신앙생활의 기본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교회 출석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예배 출석'의 기준조차 세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매주 교회에 참석해야 '정기적 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월 1~3회'(20%) '연 1~10회'(1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젊은 세대는 훨씬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18~34세 응답자 가운데 25%는 '연간 1~10회 참석'만으로도 '정기적 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다른 세대보다

유독 낮은 기준을 보였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교회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는지 '특별한 순간'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도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은 교회 출석을 헬스장 다니기 같은 '규칙적 습관'보다는 특정 식당을 가끔 찾는 것 같은 '선택적 활동'에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콧 맥코넬 총괄디렉터는 "젊은 세대는 교회를 건강을 위한 필수 루틴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전환이나 특별한 만남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는 '교회 출석'의 의미 자체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보였다. 조사 결과, 전체 미국 성인 가운데 '대면 예배 참석'을 정기적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27%는 '온라인 예배 참석' 역시 정기적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젊은 층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았다. 대면 참석을 필수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 출석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8개의 단어 목록을 제시했을 때 미국 성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38%) '존경할 만한'(31%) '일반적인'(28%) '인기 있는'(18%) '기대되는'(18%) 등 긍정적 단어를 우선적으로 떠올렸다. '시대에 뒤떨어진'(11%) '드문'(10%) '쓸모 없는'(5%) 등 부정적 단어는 후순위로 꼽혔다. 젊은 세대에 해당하는 18~34세 응답자 중에선 가장 많은 34%가 '존경할 만한'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맥코넬 디렉터는 "엔데믹 이후 교회 성장의 대부분은 예전에 출석했던 사람들의 복귀 덕분으로 본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리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슈퍼볼 4회 출전 짐 켈리...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의 쿼터백(1986~1996)으로 슈퍼볼에 4번 진출하고, 2002년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린 영구 결번 선수 짐 켈리(65)가 최근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고백했다.



켈리는 지난 24일 '그레이스 비긴스'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매주 교회에 다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NFL 은퇴 후 우리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갖게 됐다"며 "아들에게 미식축구 농구 야구 등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희소유전병을 진단받고 2005년 8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고백했다. 이 아픔은 그의 신앙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흔들었다. 켈리는 "하나님께 화가 났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아내와 멀어지며 불륜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아내와 장모의 중재 덕분이었다. 켈리는 "18년 전 장모님이 내게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와 큰딸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또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덧붙였다.

켈리는 또 "나는 슈퍼볼에 네 번 출전해 네 번 패배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며 생존 확률 2%의 암과 네 번 싸우고 네 번 모두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등 승리했다"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했다.

켈리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신앙생활을 공개해 왔다. 2023년 9월엔 "나는 '크리스치니즈'(Christianese·기독교인만 이해하는 용어나 전문적인 표현)를 쓰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라며 집 수염장에서 "하나님은 실존하신다(God's Real)"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세례받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독일 인구 47% 무종교... 기독교 쇠퇴 가속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무종교인 수가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를 합친 수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역사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기독교 교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9일 유럽의 기독교 매체인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는 지난해 독일 인구의 47%인 3900만여명이 무종교인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개신교와 로마가톨릭 신자를 합친 수는 38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독일의 종교 인구를 조사한 독일세계관 연구 그룹인 포워드(Foward)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서 각각 58만여명의 신자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로마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24%, 독일 복음주의교회(EKD) 소속 개신교 신자는 21%, 무슬림은 3.9%, 기타 종교 공동체는 4.1%를 차지한다.

포워드는 "개신교가 2020년까지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로마가톨릭 교회가 더 큰 감소세를 보인다"며 "지난해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각각 58만여명의 신도가 감소했다. 로마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100만명 이상의 신도를 잃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워드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의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들면서 지난해 독일 내 무슬림 신도의 숫자는 약 8만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포워드는 종교적 소속 외에도 독일인의 예배 참석률도 분석했다. 지난해 독일 로마가톨릭 신자 중 6.6%가 매달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했으며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비율이 2.3%로 더욱 낮았다. 반면 무슬림 신자의 약 25%가 정기

적인 모스크 예배(금요 기도회도 포함)에 참석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영국 더타임스는 독일 기독교의 쇠퇴 원인으로 '중세 십일조 제도의 희미한 잔재'인 교회세를 지목했다. 독일 교회에 등록된 신도는 일반 소득세의 8~9%에 해당하는 교회세를 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산세·양도소득세에도 종교세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교회의 각종 추문도 독일인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로 분석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하기로" ...참모들은 전방위 설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발효된 자동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관세 전쟁 이후 자동차업계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계 유예에 이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와 다른 기존 관세와 중복되지 않게 하고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외국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도 완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낸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등과 같은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외국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해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한다. 1년간은 미국산 자동차 가격에 3.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번째 해에는 2.5%만큼 각각 부품 관세가 환급된 뒤 이후에는 폐지된다고 WSJ는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보상을 제공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 제조 확대를 약속한 제조업체들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있어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의 최고경영자 짐 팔리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에 미치는 관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점점 돌아서고 있는 데에는 참모들의 전방위 설득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약시오스는 이날 "많은 행정부의 관리들이 트럼프의 공격적인 전면 관세 부과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백악관 내부에서는 참모들이 매일 트럼프의 세계관을 부드럽게 바꾸려고 애쓰고 아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3. 허섭(1881-?)

허섭은 1881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23세가 되던 1904년에 두 살 적은 아내와 한 살 된 딸과 56세의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노동 이민선에 올랐다. 그해 2월에 그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로마 알파벳으로 Hur Surp으로 그의 이름을 표기했다가 S. Hur로 소개했다.

하와이 노동 이민을 마치고 1908년 11월에 허섭은 가족과 함께 미국 북가주 새크라멘토(삭도)로 이주했다. 윤경학과 함께 그는 이관일이 운영하던 한인 여관을 사서 영접하였다.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겸 교사

허섭은 가족과 함께 삭도에서 북가주 마운틴뷰로 이주하여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1911년 9월에 허섭 부인의 병환이 중한 가운데 이성민의 한인 여관에서 체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근 산호제 사립병원에서 치료 중 의약의 효험이 없어 향년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일 적에 불행 신사라 하니 만 리의 고흔 됨도 비참하거니와 어린아이들의 병경이 측은하더라"고 신한민보는 보도했다. 그해 10월에 모친과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심히 어려운 중에 이성민이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 아이 하나를 양자로 삼기로 하고 4, 5인 한인 동포 앞에서 서로 맹세한 후 이성민이 아이를 데려갔다.

1911년 12월에 마운틴뷰에서 동남쪽으로 3마일 떨어진 씨니빌에서 김원섭이 125에이커의 도마도 농장을 시작하면서 에이커당 27달러로 빌려 300여 달러를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3,000여 달러를 수확 후에 주기로 하였다. 이 거액을 그가 혼자서 담당할 수 없어서 10여 명의 한인 동포와 동업하였는데 허섭도 이창호, 김성일, 정국신, 정국서, 임선봉, 이정규, 양국환, 박준화, 박준근, 한치장과 함께 동업하였다.

허섭이 1914년에도 씨니빌에서 농

사하였다. 그해 2월에 가족이 있는 마운틴뷰에 갔다가 씨니빌로 되돌아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중상당하는 등 아내 잃고 고된 노동에도 그해 8월에 구연성이 씨니빌을 두고 읍은 시에 그가 감동하였을 것이다: "고은얼 굴숙이고 아침이슬찬나와 슈풀밀에 숨어도 향내조차그길로."

상항 한인 감리교회에서 1915년 6월 26일 토요일에 미국 남감리교 태평양연회 산하 동양인 선교부는 제1차 한인교회 지방 연회를 개최하였다.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인 허섭은 같은 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였던 김원섭과 함께 참석했다. 그들이외에도 황사용 전도사,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성원, 삭도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찬일과 이응묵, 상항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황사선과 강영성,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필권과 임준기가 참석한 가운데 항구 선교사 이대위 목사가 개회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한 후 회부에 들어갔다. 북가주 한인 감리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가 있고 난 뒤 제반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이대위는 지방 집사 목사로 안수받게 되었고,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임준기, 삭도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이응묵과 양주은, 상항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황사선에게 전도사 기간을 연장하였고,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에 순회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새크라멘토, 스타톤 그리고 오클랜드의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선이 1915년 한인교회 지방 연회 이후 마운틴뷰도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가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권사였던 허섭이 동포 권사 김원섭과 나누어 예배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해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는 세계 교인이 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7명이었다.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용의 1916년 보고에 새크라멘토, 스타톤, 맨티카, 오클랜드 그리고 매리스빌에 있던 한인 감리교회에 대한 통계는 있어도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통계가 없어서 그해 마운틴뷰 한인감리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허섭은 1916년을 전후하여 마운틴뷰에서 맨티카로 이주하였다. 그와 가족은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등록하였다. 그해 황사용이 순회 전도사로서 맨티카뿐 아니라 새크라멘토, 스타톤, 오클랜드 그리고 매리스빌을 순회 방문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하였다. 그해 스타톤과 맨티카는 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통계와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통계가 합쳐져서 보고되었는데, 그해 세계 교인은 1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그해 8월에 맨티카 노동 주선인이었던 조동호가 3,550달러를 갈취하여 불래 도망하였는데, 그가 갈취한 돈은 한국인 30명의 공금과 필리핀인 2명의 공금과 여러 한국인에게서 빌린 돈도 포함되었다. 허섭이 그에게 60달러를 빌려주었고, 그의 빌려준 자는 강원서, 안중권, 손기보도 있었다. 도망친 조동호가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까? 허섭외에 조동호에게 돈을 빌려준 강원서, 안중권, 손기보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그달 29일에 국치기념일을 지켰다. 일동이 '무국화'를 부른 후 최능익이 기도하였고, 전폴린이 '정신가'를 불렀으며,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용이 연설하였다. 허섭의 딸 허순복이 '대한국의 용병, 나가자'를 부른 후 누군가 연설하였고, 한영대와 김승현이 음악을 하였으며, 3명이 이야기를 한 후 마쳤다. '대한국의 용병, 나가자'를 부를 때 도적을 꾸짖으며 손을 들고 대병을 지휘하는 모습을 취한 허순복에게 만장 시선이 모두 한곳으로 모였다. 다시 음조를 바꾸어 조국의 참상을 노래하여 반도 한국의 원통히 흐르는 피를 그려내면서 허순복이 하염없이 흘린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고, 목이 메어 노래를 마치지 못하였다. 50여 명 청중은 허순복의 노래에 흔들렸다. 대군의 뒤를 따를 생각이 물결일 듯하다가 참상을 그려놓아 일어나는 가련한 동포의 신음하는 정상이 완연히 눈에 보이는 듯하여 분하고, 아픔을 금치 못하여 일시에 눈물을 뿌렸고, 사람마다 분연히 일어나 무엇이든지 조국을 위하여 예비하기로 작정하였다. 청중은 탄식하면서 14세 된 어린아이가 조국 강산을 경경도 못 하였는데, 조국의 비운을 슬퍼하여 저같이 눈물을 뿌리려는 우리는 항일 활동을 점점 쉬지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모인 자들은 허섭에게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우리나라 태산복두가 되게 하면 진실로 적지 않은 공덕이라 하였다.

1917년 2월에 허섭은 맨티카에서 우체국 사서함 177호를 열고 여관을 운영했다. 그는 그달에 다음과 같이 광고했

다: "맨티카라면 일 많은 곳인 줄 아시오리다. 본인이 이곳에서 여관 하는 줄도 아시오리다. 올해에는 사탕 회사도 한층 확장하고 여관 사업도 규모를 늘려서 무이 발일은 물론 사철 계속이오... 포도밭도 6, 7에이커를 계약하였사오니 일하시기 원하시는 동포는 어디로 갈고 방향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이러한 광고를 3월에도 썼다.

그해 여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는 세계 교인 54명에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임정구가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맨티카뿐 아니라 오클랜드와 스타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전도하였다.

그해 10월에 허섭은 신한민보 가족채 보상금 제9회 발기자로서 6달러를 기부했다. 다음 달에 맨티카 지방회가 내년도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임원은 대부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허섭은 부회장에 선임되었고, 그의 임원은 회장 김필권, 서기 김계선, 총무 한치홍, 재무 김계선, 학무원 조문해, 법무원 방영관, 구제원 김성일, 대의원 김원택 그리고 실업부원 한상호였다.

1918년 3월에 발표된 맨티카 지방회실업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단독으로나 동업으로 821에이커 무이농장을 경작하였는데 허섭은 320에이커의 농장을 단독으로 경작하였다. 농장 외에 맨티카 호텔 내 서양 식당이나 세탁업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해 11월에 신한민보 기계제장장 의연으로 제32회 동맹자에 가입하여 허섭이 5원을 기부했다.

1918년 여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는 세계 교인이 56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5명이어서 작년보다 세계 교인이 5명 늘었고, 학습 교인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임정구 순회 전도사가 관리하는 오클랜드와 스타톤에 있던 한인 감리교회보다 세계 교인은 다섯 배 이상 많았다. 작년 이어 임정구 순회 전도사가 맨티카를 비롯하여 오클랜드와 스타톤을 순회 전도하도록 파송 받았다. 그해 8월에 맨티카 교회 재무 김원택이 보고한 바로 허섭은 맨티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10월 50전을 헌금했다. 그해 5월에 허섭은 국민의무금으로 5원을 냈고, 이듬해 5월에 독립 특별 의연으로 10원을 냈으며, 이듬해 8월에 국민회에 의무금 5원을 냈고, 다음 달에 독립 의연으로 20원을 기부하였으며, 그해 10월에 의무금을 또 냈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는 1919년 여름에 세계 교인 30명에 학습 교인 2명이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열세였다.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

1920년에 허섭은 가족과 함께 다뉴바로 이동했고,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에 등록했다. 그해 그 교회는 기도처에서 조직 교회가 되었다. 간도 참상 구제금으로 10달러를 기부한 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음 달인 1920년 5월에 허섭의 모친이 향년 6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내에 이어 모친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허섭은 모친의 장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신한민보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는데 그의 크리스천 됨을 본다: "헛되고, 헛되고, 다시 헛된 이 세상에 처하여 있는 인생은 공연히 번거로움이 많아 양심을 혼드는 중 겸하여 천대만상으로 변함이 많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희락도 생기고, 어떠한 때에는 비참함도 생깁니다. 희락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우나, 비참함을 받은 자는 마음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아픈 것과 답답한 것뿐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슬픔과 감사함을 아울러 고하옵는 바는 만 리 지역에 외로운 몸으로 의지하고, 믿고, 모시고 지내던 죄생의 모친께서 토벌음으로 불행하게도 이달 초 3일 상오 8시 30분에 단축한 시간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시는 동시에 슬픔과 아픔이 앞을 가려 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으므로 원근간 여러 친구에게 친히 부임치 못하였음을 용서하시며, 따라서 초 3일 하오 3시 행상시에 수고를 생각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외로운 죄상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영화스러운 영광을 돌려주시는 수백 명 사랑하시는 동포 전에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내가 소천한 지 11년이 되던 1922년 12월에 허섭은 멕시코 부인과 재혼한 후 3년이 되던 1925년을 전후하여 캔자스로 이주하였다. 그해 3월 2일 오후 8시에 허섭의 사택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한창호의 사회로 개회하고, 일동 애국가를 제창한 후 허섭이 기도하였다. 그 후 취지 설명, 김양선 등의 병창, 장병훈의 독립선언서 낭독, 김양선의 독창, 신태림의 축사, 장낙천의 독주가 있었다. 장낙천이 조국의 기근 구제를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모금하였고, 만세 삼창하고 폐회했다. 한창호, 최영익, 장낙천이 종일 준비한 한식을 먹은 후 서양식 댄스와 한국식 소리로 12시까지 즐겼다.

그해 11월에 허섭이 병을 얻어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지 3주나 되어도 차도가 없었다는 신한민보의 보도 이후 그를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 6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기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헌정전도-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300 Kirby Rd, Little Rock, AR 68846</p>	<p>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ccolli@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영):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샌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6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일칸사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찬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8502</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영양예배: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213-1200, (254) 659-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ccr.com 9424 S. Ye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V.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들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규범

3)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1) 이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악덕들을 잘 살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일이며, 또 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좋아하고 신실한 태도와 겸손함으로 그들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한다(빌 2:3; 롬 12:10).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을 비우지 않으면 이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야 하며, 우리 자신과 비교해 모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해도 좋은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 마음을 교만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다. 우리 안에 온갖 추악한 악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악덕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심지어 그것들을 덕목이라고까지 여기게 된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만 하면 우리는 즉시 그것들을 우리 자신들 안에서 높이고, 마침내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만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악덕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심각한 악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덕들에 복종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은폐하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슬쩍 넘겨버린다. 대신에 만일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어떤 허물을 찾아내게 되면, 그 허물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부풀려서 말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들은 아주 무례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울라하려고 하며 나보다 열등한 자들을 예외 없이 무시한다.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좋은 주인에게, 교육받지 못한 자는 교육받은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2)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치명적인 것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아첨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품과 도덕을 비난한다. 혹은 다툼이라도 생기면 그때에 마음속에서 도사린 독이 그대로 터져 나온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되어 갈 때는 상냥하고 온전하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도 계속해서 상냥함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런 자기 사랑의 질병을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 허물을 성실하게 인식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3) 우리의 이웃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선물들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들을 지닌 자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두신 명예로운 사람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크게 타락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들을 바라지 말고 간과하라. 허물들을 아첨하는 마음으로 감싸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범한 사람을 능욕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 대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의 바르고 온화하게, 그리고 상냥하고 우정 어린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타인존중의 태도 이외에는 그 어떤 태도로도 진정으로 온화한 인간이 되기 어렵다.

(4) 우리 이웃의 권익을 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자아를 생각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모든 육적인 애착을 말끔히 청소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사랑은 인내와 겸손이다. 사랑은 질투나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교만이나 시기도 아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전 13:4f).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자기사랑으로 끌어가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위탁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탁된 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자유롭게 나누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확실한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음을 명심하라.

(5) 이웃을 위해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신체의 각 지체들이 소유하는 기능들에 비유하고 있다(벧전 4:10). 어떤 지체도 그 자체 자신만을 위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 지체는 사사로움 목적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책임만을 안고 있을 뿐이다. 각 지체는 몸 전체의 공동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유익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전 12:12ff). 이처럼 신앙인은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된다. 그는 언제나 교회의 공동선에 눈을 돌려야만 한다. 이 법칙을 붙들고 선하고 인간성이 넘치는 행위를 다하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이웃을 돕자.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하여 언제든지 평가받아야만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엄마 손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손은 가늘고 흰 예쁜 손이 아니다. 손등에는 울퉁불퉁한 굵은 혈관이 드러나고 손마디도 굵은 손이다. 손도 유전인가가 작용하는지 나이가 든 내 손을 보며 옛날 우리 엄마 손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한번도 내 손이 예쁘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 내 엄지 손가락은 짧고 굵어 흔히 말하는 '손재주 많은 손'이다. 좋게 말하면 재주가 많은 손이지만, 보기에는 조금 기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손을 가꾸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전에 매니큐어 일을 하던 제자가 있었다. 손이 미울수록 매니큐어를 해야 시선이 손톱으로 가서 손 자체를 덜 본다고 열심히 매니큐어를 들고 와서 칠 해주었다. 하지만 매니큐어를 바른 손이 어색하기도 하고 손톱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제자의 정성을 거절했다. 내게 손은 가꾸 대상이 아니라 일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을 몇 번 만났다. 이십여 년 전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분이라 이제는 서로의 얼굴에 깊은 주름도 낫설지 않은 사이다. 자상한 성격의 목사님은 온전하는 내 손을 유심히 보셨는지 "손이 막대한 사람 같네. 손 좀 가꾸지." 하고 안쓰럽다는 듯 한마디를 한다. 문득 오래전 누군가도 내 손이 고생한 손 같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 좀 가꾸라는 친구 목사님의 말에 엄마의 손이 생각났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은 '약 손'이었다. 배가 살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엄마 손이 약 손"이라며 배를 만져 주시면 어느새 아픔이 가라앉곤 했다. 아픈 자녀를 향한 안쓰러운 사랑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치료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엄마 손은 또 한없이 든든한 손이었다. 길가의 큰 개가 무섭거나 마음이 두려울 때, 엄마 손을 꼭 잡으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은 한없이 희생적인 손이었다. 집안에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와주는 언니나 할머니가 계셨지만, 집안이 어려워진 후로 엄마 혼자 빨래, 음식 준비, 청소도 도맡으셨다. 일 끝이나 되는 자녀들을 위해 늘 부지런히 움직이셨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정성껏 싸시고, 이불 호정을 빨아 다듬어주시고 꿰매시던 모습이 선하다. 초겨울이면 반 트럭은 될 만큼 많은 배추로 대식구가 겨우내내 먹을 김장을 하시던 풍경도 떠오른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신 엄마의 손이 어찌 고을 수가 있었을까. 어느 분이 나이 든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내미는 손이 거칠고 지저분해 보여 거절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엄마에게는 다른 핑계를 댄겠지만, 그 말은 내게 충격이었다. 엄마의 손이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싫다니 그 손이 왜 거칠어졌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을까?

딸에게 친구 목사님이 내 손을 보고 가꾸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니 딸은 대학 시절에 엄마 손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던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아마도 딸 역시 엄마 손이 거친 것이 안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이 곱지 않다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예쁜 손이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약손, 든든한 손, 희생하는 손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손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도 친구 목사님의 말이 자꾸 생각나서 요즘은 핸드로션을 잘 챙겨 바르고 있다.

linda.pyun@itsla.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California,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인생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다. 진학도, 결혼도, 직업도, 비즈니스도, 모든 일이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될 일도 안되고, 때가 맞으면 안될 일도 된다. 요즘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많이 이야기한다. 주식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타이밍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전도서 3장이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

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알려준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있거나 슬퍼해야 할 때 춤추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딱 좋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때에 맞는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찾

만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항상 지키기만 하고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준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 좋은 직장을 잃을 때도 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애정이 담긴 살던 집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그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듯 하다.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가장 적합하게 예정해 놓으신 것 아닐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굵이 굵이 사연이 많은가? 인생 잘 풀리는 듯 하다가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힘든 일만 계속 되다가도 '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쓴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곧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불행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행복해진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쓴 것이 지나야 단 것이 오는 것이 아니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더불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3)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된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면 된다. 궁핍하고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행복하자. wmlakim@gmail.com



10월18일, 제 10회 설교페스티벌 열린다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 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가 주관하는 설교페스티벌이 올해 10회를 맞는 가운데 오는 10월18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

최된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24일(목) 오전 11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고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제 개혁대학, 그레이스미션대학, 미성대학, 에반겔리아 대학, 월드미션 대학,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헨리 아펜젤러 대학의 대표들과 성시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송정명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올 설교 페스티벌의 주제를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정했으며 설교 본문은 구약(왕하 28:6, 느 4:15-23, 시 113:1-3, 렘 50:5)과 신약(마 18:19-20, 요 15:1-8, 골2:2-3, 골 2:19)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수상,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 비전상, 발전상, 은혜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한다. 본 설교페스티벌은 앞으로 이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격려와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시작돼 올해 10회를 맞고 있다.

<이성자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음악회를 마치고 윤임상 교수와 학생들이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31회 학생음악회

"학생들의 기량 높이고 지역사회에 음악예술로 섬기는 기회"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제31회 학생음악회가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4월27일(주일) 오후 6시에 개최됐다. 임성진 총장은 "WMU음악과는 이번엔 31번째 학생음악회를 갖게 되었다"며 "31번째까지 이어온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민

족이 함께 살아가는 LA 지역사회에 음악예술로 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번 음악회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19세기 초 민족적 정체성을 음악으로 승화하려 했던 국민악파의 작품들

을 연주했으며 러시아의 미하일 글린카 작곡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Mikhail Glinka - Ruslan and Lyudmila - Overture), 체코의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몰다우,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Peer Gynt Suite No.1, 2),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Finlandia), 영국의 랄프 본 윌리엄스 그린 슬리브스(Green-sleeves) 환상곡 등이 연주됐다. 특히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과 민족시인 월트 휘트만(Walt Whitman)의 시를 소재로 월드미션대학교 교수이자 이번 음악회에서 소개된 국민악파 중 한명인 Edward David Zelfiff 교수가 작곡한 'To Know'와 'Destinations'가 연주됐다. 이날 음악회는 코리아 판타지를 WMU & 라크마첸버콰이어와 영엔젤스 콰이어가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가 주최한 해설과 함께하는 한국가곡의 향연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해설과 함께하는 한국가곡의 향연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는 '해설과 함께하는 한국가곡의 향연 음악회'를 4월26일(토) 오후 5시30분에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파사데나장로교회가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남가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10명이 출연해 고전

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1930년대 초창기 가곡부터 2000년대 아트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소프라노 김중숙의 사회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각 곡마다 김중숙의 해설이 함께 어우러져 단지 공연

자들의 곡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곡 해설까지 곁들여져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 첼리스트 김원선, 피아니스트 안정희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고향의 봄을 시작으로 테너 오위영이 '목련화'와 '선구자', 메조소프라노 김우영이 '사월의 노래'와 '진달래 꽃', 테너 오정록이 '얼굴'과 '벚노래', 바리톤 최기돈이 '신고산 타령'과 '거문도 벚노래', 바리톤 권상욱이 '명태'와 '가고파', 소프라노 김시연이 '강 건너 봄이 오듯'과 '꽃피는 날', 소프라노 김중숙이 '코스모스를 노래함'과 '별을 케는 밤', 김주혜가 '아리리요', 메조소프라노 채주원이 '내 마음', 테너 이상현이 '첫사랑' 등을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연주자들이 '희망의 나라로'를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내 맘의 강물'을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가 만든 설교에서 ...

<1면에서 계속> 좋은 설교가 요구하는 개인별 맞춤 접근 방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는 흔히들 말한다. 설교자라면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 있기에, AI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경고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AI를 거부하도록 설득하는 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젠 마치 대학생들에게 논문 개요 작성에 ChatGPT 사용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분석과 개요 작성에 필요한 특정 기술 개발의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라도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미 AI의 몇몇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 아니, 몇 가지 기술을 더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실종된 고리: 예배

다음은 설교 원고 작성과 관련하여 AI 활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존 파이퍼의 조언이다. 그는 이 대화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AI는 인간의 학습과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해서 놀라운 정확도로 단어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한다. 하지만 인공 감정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길 수 있다. 로봇이 경배나 감사의 단어 패턴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예배하고 감사하는 건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

존 파이퍼는 말한다. "예배라는 게 단지 컴퓨터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고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감정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설교자는 단순히 교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명은 단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거나 사전, 백과사전, 또는 책에 나오는 성경 단어와 구절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것이 이상이다. 로버트 스미스의 말처럼, 우리는 주해 안내자(exegetical escorts)가 되어야 한다.

"주해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단순한 말만으로 이 소명을 이룰 수 없다. 예배는 설교의 전제 조건이자 정점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찬양을 잘하는 못하든 관계없이, 모든 목사가 예배 사역자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예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교인들의 마음을 이끌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다. 신학은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한다. 설교의 핵심은 예배이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 경외심을 갖는 것이다.

왜 AI 기반의 설교는 부족한가

로봇은 예배할 수 없다. 따라서 설교 준비를 로봇에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설교의 필수 요소인 마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설교 초안을 로봇에게 맡기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한다. 설교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 여기저기 수정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왜 그토록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설교자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나 설교자와 관계없는 감정 또는 설교자에게 진리가 아닌 생각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는 단지 성경 구절에 대한 사실들을 되뇌고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설교는 말씀이 불리일으키려는 감정을 교인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시하고, 그들의 교회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다음 세대가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예술적으로 묘사되고, 완벽하게 다듬어졌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설교를 물려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건 어떤 설교인가? 온갖 감동적인 단어로 채워졌지만, 말씀에 의해 불타오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설교. 회개의 대본을 충실하게 따르지만 설교자의 영혼을 꿰뚫어 생각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설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의 말로 쌓여 있지만, 정작 교인들에게 보여줄 정도로까지 그의 영광의 무게에 떨어본 적이 없는 설교자의 설교. 마음이 없는 설교는 곧 능력이 실종된 설교이다.

by Trevin Wax, TGC

히 느끼게 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온 세상의 교회마다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된 하와이에담교회(627 South St. #206 Honolulu) 문외는 808-226-8446으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뜻깊은 세례식을 마친 강성한 성도(102세 중앙 좌측)와 이흥균 성도(75세 중앙 우측)가 담임목사(중앙)와 성도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하와이에담교회, 특별한 세례식

"부르심에 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자"

하와이에담교회(담임 홍기성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세례식을 가졌다.

홍기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규성 집사 기도, 조수자 권사 특별찬양에 이어 홍기성 목사가 설교했다. 홍목사는 '되로 주고 가마니로 받는 은혜'(빌 3:10-14)의 제목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자"고 강권했다.

이어 진행된 세례예식을 통해 강성한 성도(102세)와 이흥

균 성도(75세)가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늦은 나이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선포하는 뜻 깊은 날이었다.

담임 홍기성 목사는 "그동안 펜데믹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동성애 문제와 교회 안에서도 예배문화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크고 작은 충돌과 교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성도의 세례식을 보며 고우들은 물론, 미국 본토에서 온 가족들이 축하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절실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한인교회, 제6회 KCQ 뉴욕 신학세미나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5월 19일(월)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2층에서 '육량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경희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제6회 KCQ 뉴욕 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회비는 10불(얼리버드), 20불(현장등록)이며 선착순 50명이다. 등록은 <https://forms.gle/3FvvL4TVTL0e8Mnb7> 또는 QR 코드로 하면 된다.



▲ 문의: 718-672-1150

프라미스교회, K-전도 콘텐츠 및 선교적 교회 세미나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5월 19일(월) 오전 10시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K-전도 콘텐츠 및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321-7800

조지아센추얼대학교, 교회음악세미나 및 설교 컨퍼런스 개최

조지아센추얼대학교는 5월 13일(화) 뉴저지 잉글우드클리프스 캠퍼스 (58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에서 "은혜"라는 주제로 교회음악세미나 및 콘서트를 오후 6시에 개최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시대의 물음에 설교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권호(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임도균(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 유희덕(조지아센추얼대학교 성경신학 교수)을 강사로 초청하여 설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문의: 470-416-0908

뉴욕효신장로교회, 창립41주년 기념행사 중 헌혈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5월 25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관 지하에서 헌혈을 실시한다. 헌혈 가능 연령은 만 17세부터 75세까지이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된다.

▲ 문의: 718-321-1787



손한권 원로목사 추대 및 운영환 목사 위임 감사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예사랑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 감사예배

함께 걸어온 25년, 은혜의 릴레이로 이어지는 목회

뉴욕 예사랑교회는 4월 20일(주일) 오후 5시, 손한권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고 운영환 목사를 제2대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감사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날 본당과 지하 친교실까지 가득 메운 성도들과 지역 목회자들로 한층 감동을 더했다.

경배와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뉴욕노회장 정기태 목사의 인도로, 허윤준 목사 기도, 박병섭 목사 성경봉독 후 이규본 목사가 '엘리아와 엘리사의 리더십 승계 (왕하 2:7-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엘리아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영감'은 더 큰 능력보다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한권 목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여주고, 은혜가 임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세 가지 핵심을 운영환 목사에게 나누며 후계자 양성에 힘썼다"고 깊이 있는 후임자 훈련에 대해 소개했다.

2부 위임식에서는 운영환 목사와 성도들의 서약이 있는 후,

이중원 목사는 성도들에게 "손목사와 함께했던 협력의 마음을 윤목사와도 이어가고, 원로목사님을 계속 존중하라"고 당부했으며, 윤목사에게는 "20여년의 헌신은 분이 되며, 담대히 사역하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윤석 목사는 "손목사가 모세처럼 교회를 개척했다면, 윤목사는 여호수아처럼 그 사역을 이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진 3부 순서에서는 손한권 목사의 원로 추대식이 운영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김태형 장로의 추대사, 노회장 정기태 목사의 공포와 기도, 공로패와 추대패 증정이 이어졌으며, 노기송 목사는 "손목사는 교회 건물도 손수 고친 참 목회자였고, 윤목사는 묵묵히 준비된 후계자"라고 평가했다. 손목사의 조카가 보낸 축하 영상도 감동을 더했다.

끝으로 손한권 목사는 "열정 하나로 시작한 개척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아내, 가족,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윤목사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은 귀한 동역자였다"고 회고했다. 예배는 황동익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홍현숙 기자)



블레싱USA 캠페인 간담회 후 "It's Okay! With Jesus" 스티커를 들고 사진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블레싱USA 캠페인 간담회

"6월7일, 뉴욕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대규모 거리 전도 집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송정훈 장로)는 지난 26일(토) 오후 12시, 플러싱 산수갑산 한식당에서 '블레싱USA 캠페인' 간담회를 열고, 뉴욕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펼쳐질 대규모 거리 전도 집회와 복음 확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간담회는 황규복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송정훈 장로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시대 변화에 맞춘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며 "고정민 이사장의 '복음의전함' 사역은 '전투적인' 복음 전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캠페인 주제인 "It's Okay! With Jesus"를 소개하며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단순한 위로나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블레싱USA 캠페인'은 2024년 미 서부에서 시작돼, 200만 명의 한인 성도들과 함께 'K-복음 콘텐츠'인 <들어볼까>와 <복음명함>을 활용해 복음을 전파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동부 지역으로 확장돼 약 3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뉴

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에 배우 윤유선 씨가 등장하는 "It's Okay! With Jesus" 복음 메시지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복음의전함은 이를 넘어,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거리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It's Okay! With Jesus"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개인은 5월 15일까지 복음의전함 웹사이트(jeonham.org)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음의전함은 "나로부터 내 주변이,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도록 미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캠페인이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확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했다.

(홍현숙 기자)



뉴욕청소년센터(AYC) 제23회 농구대회 후 참석자들 사진 촬영했다

뉴욕청소년센터(AYC) 제23회 농구대회 성황리에 개최

우승 뉴욕그레이트넥교회·준우승 아름다운교회

뉴욕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Y)가 주최한 제23회 농구대회가 4월 26일(토) 오전 8시30분 아름다운교회(계재광 목사 시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는 계재광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9개 교회가 참여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교류와 신앙 안에서 연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는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가 우승을, 아름다운교회가 준우승

을 차지했다. 모든 참가 교회와 선수들은 승패를 초월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교회는 뉴저지 베다니교회, 뉴저지하나임교회, IN2 교회, 뉴욕센터교회, 아름다운교회,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뉴욕늘기쁨교회, 그리고 베이사이드장로교회가 함께 했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9기 종강 및 파송예배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총 10명 수료생



뉴욕실버미션학교 제39기 종강 및 파송 예배 후 기념 촬영을 했다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4월 28일(월) 저녁 7

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제39기 종강 및 파송예배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주제로 드려졌다. 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사 이지용 목사가 대표기도 후 뉴욕실버미션 찬양단이 찬양을 드렸다.

이사 김성기 목사는 "다 이루었다(요 19:3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우리 삶의 시작점이자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표적이기에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권면했다.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의 헌금송, 황규복 장로의 헌금기도가 있었으며 특별기도 시간을 통해 김경열 목사, 조철제 장로, 황달연 장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사장 최창섭 목사는 수료자 10인에게 수료증서를 전달했다. 최운섭 목사가 수료생들과 함께 파송선서를 인도했으며, 이사장 최창섭 목사의 축복기도 후 박현영 목사의 축사와 이후원 집사의 담사가 진행됐다. 사무총장 이형근 장로의 광고 후 전 설교대학장 노재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담대한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MMC 담대한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드려

"아덴에서 뉴욕까지,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

담대한교회(허장길 목사)는 지난 4월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허장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손한권 목사의 기도에 이어 허 목사가 '아덴에서 뉴욕까지(사도행전 17:16-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 목사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과 이념은 인민의 신념을 이끌지만, 하나님을 상대화하고 결국 부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 한 복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 하나님을 담대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다. 또한 "담대한교회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문종희

목사(Aerophone)와 김성희 강도사(피아노)가 '소명'이라는 곡으로 특별 연주를 선보이며, 1주년의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했다. 이어 권광희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고 >911 기도의 생활화 >찬양들을 위한 중보 >대한민국과 미주 지역의 부흥과 회복 >전도의 일상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예배는 양희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담대한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 6시, 315 W. 22nd St. New York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911 기도'를 통해 매일 오전 9시 또는 오후 9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1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교회 사무실(325 West 38th St. #809)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성경공부를 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MGMC와 함께 맨하탄 거리 전도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전도 일정은 오전 10시 20분 예배 후, 오후 12시 30분 타임스퀘어와 오후 2시 Macy's Herald Square에서 진행된다.

(홍현숙 기자)

제9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회 :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 2025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3. 장 소 : **세리토스 선교교회**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 **무료**(선착순 50부부), **점심식사 제공**
30-50대 신세대부부(Child Care 준비), 목회자 부부 환영
5. 강 사 :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출판) 저자
6. 강의내용: (1)가정선교, (2)가정문제 해결방안
7. 참가신청: 이메일 : jaekunlee00@hotmail.com
전화 : (562)714-0691 (이재근 목사)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워러리,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오렌지카운티 부활절연합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지역별로 일제히 열려

“예수님의 부활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예배가 각 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이창남 목사) 주최로 열린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활절연합예배는 20일(주일) 오전 5시30분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다시 살아나라(겔 37:5)’라는 주제로 열렸다. 나침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국현 목사(부회장/은혜와진리교회) 사회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는 정창섭 장로(OC장로회의 회 부회장)가 기도, 은혜한교회 중창단 특별찬양, 한성준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했다. 이날 민경엽 목사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고전 15:50-5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대절망의 현실에 직면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견고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방향이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되었으면 한다. 절대절망이 현실이었지만 예수부활을 알고 있기에 절대희망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한기홍 목사와 이창남 목사가 축사했으며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영상 축사했다. 이어 목사, 사모중창단(지휘 강문수 목사)이 특별 찬양 했으며 윤성원 목사(교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 LA동부교회(회장 최현규 목사) 주최로 오전 5시30분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열린 LA동부지역 부활절연합예배는 최현규 목사 사회로 열려 송재호 목사(할렐루야교회) 기도, 홍충수 목사(나성한미교회) 성경봉독, 연합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선호 목사(늘푸른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고후 13:4-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은 집사(주님처리)의 첼로 특주가 있었으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부활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과 산불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 LA지역은 남가주교회협(회장 샘신 목사) 주최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서울국제공원에서 LA교회(회장 류당열 목사) 주최로 열렸다. △ 남가주중부교회협 주최 부활절연합예배는 생수의강선교회(최형규 목사)에서 오전 6시에서, △ 인랜드지역은 인랜드교회협 주최로 가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에서, △ 샌디에고 지역은 샌디에고교회협 주최로 오전 6시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크리스천 대학들의 2025년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APU학위수여식 장면

남가주 크리스천 대학 2025년 학위수여식 일정

남가주 크리스천 대학교들의 2025년 학위수여식이 4월28일 캘리포니아침례대학교를 시작으로 6월14일 풀러신학교와 ITS신학대학원까지 열린다. 다음은 남가주 크리스천 대학 2025년 학위수여식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일정	학교	총장
4/28-30	캘리포니아침례대학교	로널드 엘리스 박사
5/1	벵가드대학교	마이클 빌스 박사
5/2	게이트웨이신학교	아담 그로자 박사
5/3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담 모리스 박사
	콩코디아대학교	마이클 톰스 박사
	패퍼다인대학교	짐 가쉬 박사
5/9	포인트로마나사렛대학교	케리 풀저 박사
5/9-10	바이올라대학교	배리 코리 박사
5/11	마스터스신학교	아브너 추 박사
5/13	남가주신학교	지노 파스카리엘로 박사
5/17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	존 데리 박사
5/23	체프먼대학교	다니엘 스투롬바 박사
5/31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김은일 박사
6/7	에반젤리아대학교	김종국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박사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이상명 박사
	KAPC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이정현 박사
6/13	베데스다대학교	조승제 박사
6/14	풀러신학교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
	ITS신학대학원	이승현 박사



김우준 목사

김우준 목사 지구촌교회 새 담임목사로 청빙

김우준 토렌스조은교회 담임 목사가 지구촌교회 새 담임목사로 결정됐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20일 열린 지구촌교회 교인총회에서 총 97.8%로 김우준 목사의 청빙이 결정되었다. 김 목사의 청빙결정은 지난 2024년 7월 최성은 담임목사의 사임 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김우준 목사의 청빙과정은 지구촌교회가 지난해 10월 임시 제직회를 통해 미래준비위원회(청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목자’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 과정을 진행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는 “지금의 지구촌교회에 김우준 목사님 이상 나은 선택은 없을 듯하다”며 “그는 영적·지적·문화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 선택하셨음을 축하한다. 김우준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이고,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우준 목사는 15세 목회자로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에 모두 능통한 다언어 목회자로 다민족 사역, 기도대회, 선교지 네트워크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는 다양한 문화권의 선교 현장에서 활발히 사역해 왔다. 김 목사는 UC 버클리(B.A.)와 스탠퍼드 대학원(M.A.)을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교 퍼블릭스피킹 강사와 동 대학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A.)와 박사(Ph.D.) 학위를 취득한 그는, 달라스제일장로교회 종교동부 전도사, 열린 지구촌교회 영어부 목사, 워싱턴지구촌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2017년부터 토렌스조은교회에서 담임목회를 맡아왔다. 한편 4월27일 예배 시간에 김우준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빌 1:3-11)’라는 제목으로 고별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OMC 한인교회 VBS 강습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러빙워십 주최 더 홀리원 콘서트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가 주최하는 더 홀리원 콘서트가 5월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주의 거룩한 자(행 2:27)’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콘서트의 출연자는 배우 허준호 집사, 새롭게하소서 진행자이자 작곡가 주영훈 집사, 심어송 라이터 조병진, 찬양사역자 예니엘이다. 일정은 5월2일(금)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3일(토)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4일(주일) 오후 6시 충현선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 문의: (213)357-1565

제30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이 주최하는 제30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주제로 5월5일(월)부터 10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담임)와 노창수 목사 ▲ 문의: (714)625-3000

주님의영광교회 특별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별 부흥회를 5월 1일~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주성민 목사(세계로급단교회)이며 일정은 5월1일(목) 저녁 7시30분, 2일(금)과 3일(토) 오전 5시30분, 저녁 7시30분, 4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이다. ▲ 문의: (213)749-4500

GMU와 GBC 공동주최 ‘믿음·화·살’ 부모교육 세미나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가 공동주최로 여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5월 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이진아 대표, 안송주 교수(GMU), 이수영 교수(GMU CPCI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Estee Song 교수(TBRI Practitioner), 이미지 디렉터(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문의: (714)484-1190

2025년 창작가곡제

남가주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와 뉴욕한인창작음악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년 창작가곡제’가 남가주에서는 5월 3일(토) 오후 5시, 세리토스 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지경, 민승연, 테너 오우영, 바리톤 채홍석,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안정희가 맡는다. 창작 가곡제에서는 윤일홍 작사, 장민호 작곡의 ‘노인의 꿈’은 바리톤 채홍석이, 석정희 작사, 황현정 작곡의 ‘존재의 이유’는 소프라노 민승연이 부르는 등 모두 11개 창작곡이 선보일 예정이다. ▲ 문의: (909)591-0792.

연목회 ‘바울의 율법과 종말’ 정기 세미나 개최

남가주연세동문목회자회(회장 권영대 목사, 이하 연목회)는 5월5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과 종말의 조화’라는 주제로 2025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 한다. 권영대 목사는 “올해 정기세미나를 남가주지역의 신학교에 일종의 공동개최를 요청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신학학을 강의하는 강건 교수를 초청해서 바울 신학 안에서 율법과 종말론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고, 그 신학적 조화가 오늘 우리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세미나를 개최 했다”고 설명했다. 연목회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모교의 정신을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세워진 모임으로 매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714)486-728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연목회)

OMC 한인교회 VBS 강습회

“히즈쇼와 함께 한인교회들에게 좋은 교육 콘텐츠 나누고파”

동양선교회(OMC 담임 김지훈 목사)는 4월26일(토) 오후 2시 ‘러브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한인교회 VBS강습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습회는 OMC와 히즈쇼(대표 백종호)와 협회학 석사(M.A.)와 박사(Ph.D.) 학위를 취득한 그는, 달라스제일장로교회 종교동부 전도사, 열린 지구촌교회 영어부 목사, 워싱턴지구촌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2017년부터 토렌스조은교회에서 담임목회를 맡아왔다. 한편 4월27일 예배 시간에 김우준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빌 1:3-11)’라는 제목으로 고별설교를 했다.

된 강습회는 이병목 목사가 주제 강의를 했으며 히즈쇼 데이빗 선생이 VBS활동강의를 했다. 강의에 나선 이병목 목사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VBS의 차이점은 한국교회의 경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국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공통점은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 사랑은 부메랑과 같다. 선생님께서부터 아이들이 사랑받고 아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되어 사랑을 표현하기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증거 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강의에 이어 데이빗 선생이 VBS활동 강의를 했는데, 히즈쇼에서 제작한 교육 PPT 소개, 성경게임 소개, VBS 및 교육부 자료소개를 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평안교회 창립5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미주평안교회 임직감사예배 및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민음의 선배를 따라 섬기며 다음세대 신앙전수를 위해 힘쓸 것”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임직감사예배 및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20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됐다. 이날 임직 받은 김연수 장로는 “지난 50년간 우리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6명 일꾼들이 세워졌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교회에는 주께 충성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고 다음세대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도록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진 목사 집례로 시작된 임직감사예배는 이정환 장로 기도, 임승진 목사의 사도행전 6장 1-7절 본문으로 말씀선포,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 권사 임직이 있었으며 박종임, 지양호, 최종훈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으며 임승진 목사가 축도했다. 임승진 목사 기도로 시작된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는 미주평안교회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영욱)가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기념음악회는 △경배와 찬양 △동행과 교제 △복음 △은혜와 사랑 △감사와 결단 △교회 등의 주제로 나눠진 행되었으며 ‘천사들의 합창’, ‘주와 함께 갈 가는 것’, ‘성도여 다함께’, ‘젯세마네의 기도’, ‘예수’ 등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했으며 테너 오정록 집사가 ‘웃자락에 전해진 사랑’, 소프라노 염미정 권사가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세’를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교회의 참된 터’를 불렀으며 앵콜 곡으로 ‘은혜’부른 뒤 임승진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목회자 가정부터 행복해야”

2025 침례교 목회자부부 영정성장대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독교 한국침례교 총회(총회장 이음 목사·이하 기침) 소속 목회자와 사모 897명이 한자리에 모여 5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영적 회복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참석자들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행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2025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정성장대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눈

물로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간구했다. 1997년 시작된 ‘목회자 부부 영정성장대회’는 매년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 부부의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열려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 부부들의 기대감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대회를 여는 예배에서 52대 총회장을 역임한 박성웅 천안침례교회 원로목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7:37-39)이

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총회장 재임 중 제1회 ‘목회자 부부 영정성장대회’를 기획하고 개최를 이끌었다. 그는 “목회자가 먼저 사랑, 이해, 관용의 생수가 넘쳐나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나부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음 총회장은 대회를 통해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서로 간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참석자에게 스며들기를 기도하며 말씀 묵상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침은 이날, 총회 영정성장대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 행사를 꾸준히 후원하며 섬겨온 김성로 춘천한마음교회 목사를 감사의 뜻으로 명예총회장으로 추대했다.



“교류는 | 전도는 |”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 “결국 통제?”

다음 달 1일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은 표면적으로 종교 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법적인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중국 내 종교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 중국 내 종교 활동을 관리해 왔다. 새로운 시행세칙은 기존의 사무조례보다 더욱 촘촘하게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공식적 교류를 허용한 부분이 우선 눈길을 끈다. 시행세칙 1장에는 ‘외국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 방면의 교류 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교류의 문호를 개방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의 한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중국 기독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문호가 트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모든 빛깔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다. 중국 내 선교 활동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금지의 유지는 유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 단체 수를 제한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이 또 다른 규제책으로 꼽힌다. 시행규칙 13조에는 ‘현금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집단적 종교 활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 장소만 비준한다’고 했다. 한국식으로 시나 군마다 한 곳의 교회만 허가하겠다는 의미

로 나머지는 미허가 시설이 된다는 뜻이다. 필립 위커리 홍콩성공회신학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 정책과 중국교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SARA)이 국무원 직속 기관에서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편입됐다”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외국의 교회들이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 문제를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는 곧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독교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 몇 가지를 짚었다. 위커리 교수는 “종교 정책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고 사정이 이전 같지 않아 유연하지도 않다”면서 “기독교 심포지엄이나 출판 등도 허용되지 않는데 일단 전반적인 변화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에 의한 직접 선교를 지양하는 등의 ‘중국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 등 해외의 교회들이 중국 교회와 더욱 다양한 경로에서 소통해야 하고 중국교회를 공부해야 희망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에서 동역까지’ ...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 보내는 법

장애인 주일이던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교회(김은성 목사)에 들어서자 봉사자들이 “장애 공감 부스 체험하고 가세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날 교회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장애 공감 부스를 운영했다. 방영자(81) 권사는 청각장애 공감 부스에서 서툰 몸짓으로 수어를 배웠다. 오른손을 입 가까이 가져다 대며 물을 구매하는 상황을 반복해 연습했다. 방 권사는 수어가 청각장애인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

각했다며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부스에선 볼록볼록 나와 있는 점자를 공부하고 눈을 가려 원하는 음료를 고르는 체험이 진행 중이었다. 안대를 낀 신이빈(11)양은 “음료수에 적힌 점자에 모두 ‘음료’라고 적혀있어 마시고 싶은 음료를 고르지 못했다”며 “장애가 있는 이들이 평소 얼마나 불편함이 클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계산교회 예배당 입구에선 여덟 명의 청년이 교사의 도움

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은 20세 이상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청년베데스다’ 소속이었다. 최혜성(29)씨는 “교회 안내를 처음 해봤는데 교인들이 웃으며 맞아주셨다”며 “칭찬도 많이 받고 엄지를 올리며 ‘최고’라고 해주셔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10년간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황선자(69) 권사는 “장애인 주일 행사와 청년베데스다 안내 봉사는 교회가 장애 있는 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함께 하는 과정”이라며 “봉사를 자원한 청년들을 안내봉사자로 세웠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열었다. ‘다름 아닌 닮음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수어 배우기, 점자, 휠체어 체험 등 장애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악인으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이현아 씨와 김용의 영락농인교회 목사 등을 초청해 장애인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위해 한국교회 모였다

한교총·한교총·NCCK 비롯 10개 교단 ‘라운드테이블’

지난달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중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를 비롯해 10개 교

단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한국교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화마가 덮친 7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피해 현황을 나눴다. 이어 강원도 속초·고성과 경북 울진 등 산불 발생 후 복구가 이뤄진 지역의 사례를 청취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 복구를 위한 거점교회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9년 속초·고성산불 발생 시 속초중앙교회(강석훈 목사)가 거점교회로 활약했다. 강석훈 목사는 “거점교회는 대형 재난 발생 때 해당 지역 피해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필요를 살피고 행정 지원을 돕거나 구호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연계 등의 사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목사는 이어 “재난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마을 전체에 선교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산불이 발생한 울진 울진군기독교연합회(울기연)가 주축이 돼 구호를 진행했다. 단기적으로 구호용품 전달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사랑의 집짓기, 일대일 매칭펀드 사역까지 도맡았다. 이상규 전 울기연 회장은 “각 기독교연합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사전에 만들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춤을 모르는 당신에게

(2면에서 계속)

하나님 대신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방법이나 컨디션이나 타이밍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방법대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마치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열려하고 여실프게 열심을 다해 통제하려 하지만, 우리는 책임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 때와 방법에 대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신다. 그의 방식대로 그의 리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가르침이 이 요지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성경 말씀과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이건 우리의 참여와 행동을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의 역동적 일에 참여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뛰어난 감성도 탁월한 지능도 방해만 될 뿐이다. 오직 모든 감각이 주님을 향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때로는 침묵 속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탄으로, 때로는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때로는 손을 뻗어 이웃에게 행동함으로, 때로는 일터에서 그의 거룩함을 따라 창조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 나갈 때 우리의 역할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적 삶은 미리 정해져서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해방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뜻’이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리듬감 때문에 옛 그리스 신학자들로부터 ‘춤’의 비유로 설명되곤 했는

데, 그 원형 댄스는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라 불린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페리코레스시스는 ‘하나님의 실존 양식은 너무나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조건 짓고 침투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하나는 다른 둘 안에 있고, 또 그 다른 둘은 그 하나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춤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손을 놓기도 포옹하기도 하며, 빨라지거나 더 몰아치거나 느려질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아주 섬세한 발걸음으로 맞추어야 하고, 때로는 그 다음 스텝을 예측하지 못해 온 몸의 감각을 그저 상대방의 스텝에 맡겨야 할 때도 있다. 즐거운 역동적 춤 속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말긴 채, 때로 질투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리듬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들이 취야 할 춤이다.

‘그리스도인의 나다움 찾기’는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역동적 리듬을 따라 발을 디딜 때 당신의 독특한 존재가 드러나며 진정으로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수많은 군중 속 관람자’가 아니라 ‘초월적 일의 참여자’가 되며, ‘뒤편 있는 자’가 아니라 ‘정장하는 자’가 된다. 당신이 ‘진짜의 나를 찾는

길’은 예수님 손을 잡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가는 길(요 14:6) 외에는 없다.

그 다이나믹한 춤을 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다윗왕도, 욥도, 에레미야도,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 속에 기도한 흔적을 읽는다. 그와 신비의 춤을 추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마 27:46). 매일 찬송을 불러도 의심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만큼이나 하나님도 동료들과 함께 리듬에 맞추어 기도를 드릴 뿐이다. 영원이라는 음표들 속에 잠시 숨을 고르는 침묵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정부세종청사 부활절 연합예배 은혜기운데 마쳐

23일 260여명 참여

기획재정부 기독교교회(회장 김태훈)와 정부세종청사기독교연합회(선교연합회·회장 최은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5년 정부세종청사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23일 12시에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60여명의 기독교 공무원들과 청사 근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훈 기재부 기독교교회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드러진

이 날 예배는 세종청사선교연합회 경배와찬양팀의 찬양, 최은희 선교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 홍지원 선교연합회 부회장의 성경 봉독, 세종청사연합회 성가대의 특송,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이후에는 기재부 기독교교회원 강희중 형제의 봉헌 찬송으로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함께 부르며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드렸고,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박수영 자매가 봉헌기도를 했다. 정부세종청사 선교연합회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와 위원회의 선교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가고 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7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성과 있는 선교를 향하여

도입: 위기의 시대,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다

140년의 한국 교회 역사, 그리고 지난 40여 년간 세계가 주목한 선교의 성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경제적 어려움, 교회의 내적 위기까지—이 모든 요소가 선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프로젝트성 선교는 어렵다"는 말이 들리는 이때, 우리는 물러설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선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선교로 나아가는 혁신입니다. 선교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 SK그룹의 성과연계지급(PFS) 모델

2024년 가을호 스탠포드 사회혁신리뷰(SSIR)에 소개된 SK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모델은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성과연계지급(Pay-for-Success, PFS) 사례로, 10년 이상 운영되며 지속 가

능한 사회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원리입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기

려나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능동적 사역자'이며, 우리는 그들과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구제성 선교를 넘어: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선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명확한 목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격려와 지원이 있을 때, 사명은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적용할 새로운 패러다임: 동정이 아닌 동역으로

오랫동안 선교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와' 돕는 후원자'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성과 기반 동역: 선교사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통해 더 큰 비전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과 기반 선교 프로젝트: 선교 활동의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하여, 잘하는 선교사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2. 현지 협력 선교 모델 개발: 현지 교회,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파.

3. 투명한 보고와 세대 연결: 선교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후원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특히 실질적 변화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성과 측정의 5대 원칙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사역을 어떻게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과 측정은 평가나 심판이 아니라, 더 나은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명확성(Clarity): 목표가 구

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속성(Sustainability):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영적·사회적 균형(Balance):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는 균형 잡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적정성(Appropriateness): 선교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합니다. 개방 지역과 비개방 지역, 종교적 제약이 큰 지역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지표와 실행 방안

영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선교의 미래를 밝히다

성과 기반 선교 모델이 정착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후원자와 협력 기관이 선교의 실제 열매를 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신뢰와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지속 가능성 확보: 단기 이벤트성 사역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구조가 마련됩니다.

동기 부여: 선교사와 현지 리더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되어 사역의 질이 향상됩니다.

후원 확대: 성과가 입증될 때, 더 많은 재정과 인적 자원이 자연스럽게 선교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론: 지금, 변화의 선두에서

살아있는 선교의 성과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교'입니다.

잘하는 선교사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이 시대에, 한국 선교는 세계 교회 앞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 기반 선교 모델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넓고 깊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순간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dr.yongcho@gmail.com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4. 기도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아프리카 최악의 독재자로 악명을 떨치는 우간다의 전 대통령 이디 아민은 쿠데타로 집권했다. 1966년 쿠데타로 집권한 오보테가 공포정치를 펼치자 오보테를 도왔던 이디 아민이 197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디 아민의 폭정은 오보테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디 아민은 검은 히틀러로 불린다. 그의 8년의 통치 기간에 무려 30만 명이나 학살했다.

이디 아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이었다. 쇠망치로 서로 때려죽이게 하거나 살해한 시신을 악어 먹이로 주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토막 살인해 시신을 병창고에 보관했고, 자기 아들을 죽여 심장을 꺼내 먹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그의 삶을 그린 '이디 아민'이라는 영화 포스터에 '아민! 그를 악마에 비유한다면 악마도 치를 떨 것이다!'라고 써어 있었다. 이 영화 포스터는 그의 악독함을 웅변하는 문장이다.

이디 아민은 이슬람교도이자 농부인 아버지와 주술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슬람교도로 성장했다. 이디 아민은 정권을 잡고 우간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교회를 악랄하게 핍박했다. 그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우간다 교회는 이런 박해를 이겨

내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했다. 우간다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키파셈판디'목사가 있었다. 키파셈판디 목사는 당연히 폭력적인 이디 아민 정권에 반대했다. 이디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



들은 무조건 죽여버리던 때여서 그 목사님도 살해의 표적이 되었다.

1973년 부활절 아침에 총으로 무장한 암살단이 교회당으로 몰아닥쳤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반대한 키파셈판디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목사님께 총부리를 겨누었다. 사태를 파악한 키파셈판디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라고 말했다.

키파셈판디 목사가 마지막으로 기도한다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목사님은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처럼 기도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

시고 이 죄를 용서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암살단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 목사님의 영적 파워에 감복한 것이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했던 키파셈판디 목사는 죽음의 목전에서 두려워하지 않

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상황에도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살해하려 왔던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고 감히 목사님을 살해할 수 없었다. 부활절에 실질적인 부활신앙을 소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예화다.

우간다 교회는 이런 압제와 박해의 시기를 기도로 통과했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였다. 뒤에는 바로 왕의 추격, 앞에는 홍해가 있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기도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위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Hannah)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이런 자신을 격분케 만드는 브닌나 까닭에 맘이 너무 괴로웠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삼상 1:10). 한나의 통곡 기도는 자신의 인생과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낳았다.

한나의 기도로 얻는 축복의 실체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통해 누린 이스라엘과 한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렵게 얻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모세 이후 첫 선지자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다. 그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나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에 조통과 멸시가 더해지는 큰 고통을 겪었다. 너무 서럽고 분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 한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였다.

너무 괴롭고 서러운 상황에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풀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 즉 아기를 낳아야 하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얻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해야 했던 극한 슬픔을 기도로 이겨낸 승리의 화신이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38년 된 병자나 소경 바디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죽어가는 딸을 위해 기도한 백부장 등등 모두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이라는 응답을 얻었다.

고생을 좋아하거나 삶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경험한다.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와 고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삶의 고통이 축복의 씨앗이 된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예수 그리스도로 열린 길 (눅 23:34-45) 찬 161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영적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죄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죄의 삶은 멸망과 영원한 저주뿐이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누구든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어둠 속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의 희생은 죄인을 위한 제물이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구원이 죄인에게 은혜로 임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실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야 한다.

화 부활하신 주님 (눅 24:3-7) 찬 160장

죽은 자의 무덤을 찾은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부활을 떠올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 주셨고, 이는 믿음으로 보아야 할 영적 실상이다. 육신은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계심을 깨닫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살게 될 때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눅 24:13-36) 찬 170장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처음엔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말씀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다.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을 때 비로소 깨달았으며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의 실상

을 바라보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누리야 한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목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은혜 (눅 24:47-53) 찬 180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어 진다. 복음이 퍼져 나가는 곳마다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영

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주권으로 항상 일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실상을 보고 누리야 한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아멘.

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5) 찬 289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으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다. 하나로서 아버지

와 함께하심이다. 곧 하나님이 다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으로 함께 하심이다.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되셨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

토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요 1:6-13) 찬 287장

예수님을 믿는 자,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이 된 자에게는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간다.

생명이 임하시고 사랑이 물러간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요 빛을 비취며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연합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사람 즉 연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교회음악 이야기(74)

베토벤의 부활 찬양 "할렐루야 합창"

(Beethoven's Hallelujah Chorus from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음악의 화성에 피카르디 3도(Picardy third) 혹은 피카르디 종지(Picardy cadence)라는 하모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조 음악을 마지막 코드에 3음에 반음을 올려 장조로 전환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르네상스 이전에 작곡가들이 단조의 화성으로 곡이 끝나는 것은 무언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종지를 사용하여 환희와 기쁨 그리고 완벽을 표현하며 음악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 용어는 1768년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곡가인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여 작곡가들이 이 화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L.v Beethoven 1770-1827)의 생애를 보면 이 피카르디 종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중도 장애로 평생을 살며 자신의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역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의 유산을 남겨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절대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 원동력은 그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수난 오라토리오(Passion Oratorio Music) Christus am Ölberge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Op.85를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 속에 승리의 부활을 나타내며 복음의 완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점점 심해지는 청각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과 음악인으로서 큰 어려움, 그리고 큰 슬픔을 겪자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그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인 "하일리겐 슈타트(Heiligenstadt)"를 통해 밝혔습니다. 베토벤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뮈세 (Alfred de Musset 1810-1857)는 마치 베토벤이 고통을 통해 깨달은 모습을 연상하듯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견습생, 고통은 그의 스승이니 고통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법칙이지만, 최고의 법칙이다. 세상처럼 오래된 법칙인 것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불행의 세례를 받고 슬픈 값을 다 치른 후에 사야 하는 운명이다." 한편 "시시각각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마음의 작은 들어짐과 소요 속에서 또 인생의 배가 뒤집힐 만한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의 품을 파고들라고 우리를 다독인다"고 이어령(1934-2022) 선생님이 표현한 글이 당시 베토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필자는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베토벤은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의 내면에 담겨있는 아직 깨닫지 못한 예술의 세계를 담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1801년경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통의 절정을 치르고 난 이후로 깊은 영감을 음악으로 담아내어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선율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슬픔을 위로해 주며 희망과 환희를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삶에 극적인 전환이 된 1년 후인 1802년에 드디어 그의 생을 표현하듯 그의 수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의 생애의 마지막 생애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곡가들이 수난 음악을 쓸 때 그리스도의 수난만을 집중적으로 음악으로 묘사

윤임상 목사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수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수난 과정을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마지막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부각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합창"으로서 베토벤 특유의 웅장함으로 부활의 대서사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수난 오라토리오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형벌이라는 십자가 그 불행의 세례를 받고 모진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데 있다는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이 부활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카타콤 기독교인들은 그 후속한 핍박 속에서도 매번 서로 만나면 첫 인사가 'He i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이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부까지 장장 250여 년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절대 말살되지 않고 건재하게 되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라고 CS 루이스(C. S. Lewis 1898-1963) 가 말한 것처럼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활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혹독한 오늘의 현실 속에 바른 진리들을 사수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한가지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영원히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러나 완전하게 종지를 만든 피카르디 종지 화성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결코 헤어나지 못할 듯한 암울한 고통을 벗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했던 베토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의 우아함과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을 갖고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나누었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라는 고백이 단순히 부활절에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신앙고백이 되어 그 부활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절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저 하얀 줄을 따라가면...”

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한 조각 구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도 아닙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비행기가 날아가며 하얀 줄을 그어주는 줄 구름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비행기가 하얀 줄 구름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그려놓고 가는 하얀 줄을 따라 제 생각이 나래를 펼칩니다.

“저 하얀 줄을 따라가면 그 끝은 어디일까? 저렇게 높이, 높이 줄을 그어가고 있으니 그 끝은 높고 높은 그곳 천국일까? 그래, 맞아 천국일거야. 구름타고 올라

가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가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그 천국,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나에게 하나밖에 없던 누님과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셋째 형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 또한 내가 눈물로 섬기던 성도들이 먼저 가서 있을 그 천국 일 거야.”

순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여름에 성경학교를 인도하면서 제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쳐줬던 어린이 찬송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스물 스물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타고 올라가 시며/본대로 다시 오마 하신 그 말씀/자나 깨나 있지 않고 기억하시요/오 그리운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제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불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계 1:7)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수르카 종족

▲ 인구 약 2,500명

▲ 종교 민속 종교 1%, 복음화율 99%

▲ 복음매체 신약 번역됨(2014),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필 동뉴브리튼주 와이드 베이 해안을 따라 가젤 반도에 산다. 수르카족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하지만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하거나 다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모어를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다.

▲ 기도제목 1. 모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수르카족이 모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과 복음 매체들을 아끼고 많이 사용하도록 2.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수르카족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편지

인도네시아

Apa Kabar! 안녕하세요 마나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라마단 기간이 지나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있었던 선거결과 북술라웨시 주는 새로운 주지사가 당선되었고 마나도 안드레이 시장은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한 장마로 곳곳에서 홍수가 있었고 저희 집도 여러 곳에서 비가 새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지붕 공사를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8월에는 미국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영어 회중에서 단기선교팀 방문이 있습니다. 이곳 마나도까지 들어오려면 미국에서는 뉴욕 기준으로 38-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팀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문은 원하는 팀은 많지만 쉽게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선교팀을 통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SEED 선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제가 도전받은 것 중 하나는 은퇴 나이가 훌쩍 지난 선교사님들을 보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지지만 복음의 진보를 위해 주님께서 세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는 그날까지 온 몸 다해 주님

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 봅니다!

마나도 신학교 사역

마나도 신학교 사역으로 이번 학기에는 신학원 인턴십 코스(2주)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월에 강의가 끝나면 칼리만탄 주에 있는 폰티아낙(도시) 신학교(STT Pontianak)에서 강의와 리더십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티칭 사역이라 기대가 되지만 비행시간(11시간)이 길어 쉽지 않은 것을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cts 29 사역: 어린이 사역과 교회사역

지난 2년 동안 마나도 영어 공동체에 한 달에 한 번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나도에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영어예배도 꾸준히 부흥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예배를 해 마나도에 사는 외국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는 작년 4월에 있었던 침례교 목회자 기도회에 다시 설교 부탁을 받아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나도 침례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인도네시아 곳곳으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각자 세워 주신 자리에서 선

교사로 또한 목회자로 인도네시아의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기도와 응원을 보냅니다.

3월에는 Acts 29 사역팀과 신학교 전도팀인 Stars Ambassador 팀과 협력하여 마나도 시장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복음 드라마 “Chair/의자”로 무슬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에 조심스럽게 복음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무슬림 부모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를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수몽푸 쓰레기 마을도 방문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는데 찬양과 크라프트(만들기)와 복음을 제시하는 “3 Rope Trick”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린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카우디탄 무슬림 마을은 라마단 기간에 방문하려 했지만 마나도에 홍수와 폭풍으로 한 주 연기 되어 4 월에초에 사역을 하

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더 기다림 때문인지 아이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찬양을 배우고 크라프트로 종이 팬이를 함께 만들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조금 더 가까워짐을 느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

- 1. 마나도 장학재단을 통해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20명의 신학생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2. Acts29사역과 Stars Ambassador (마나도 재래시장 사역) 어린이 사역을 통해 소외된 마나도의 어린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새롭게 준비하는 칼리만탄 주 폰티아낙 침례 신학교 티칭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4. 이해정 선교사의 건강(혈소판 수치)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이성철, 이해정 선교사



마나도 홍수 피해 SEED 선교대회 수몽푸 쓰레기마을 사역 중 영접시간 카우디탄 무슬림 어린이 사역 후 마나도 재래시장 어린이 사역 마나도 영어 예배 성도들과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 1.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 가족 사진 첨부)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브버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4월 30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미얀마, 113년 만의 최악의 지진

3월28일,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을 강타한 7.7 규모의 지진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진동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수년간의 내전과 슈퍼 태풍에 이어 또다시 덮친 재난. 사람들은 가족과 집을 잃고,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얀마를 돕기 위한 힘을 모아주세요.

Chase Bank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Account Number 931383936
Routing Number
071000013(Deposit, ACH)
021000021(wire transfer)

수표보내는 곳

Pay to the KAFHI(Memo 미얀마긴급구호)

보낼 곳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전화

847-296-4555, 703-473-4696

